

유연한 사고와  
감성을 지닌  
로맨티스트  
유광남 실장님

:: 성진석\_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광남 전 실장님

필자와 유광남 실장님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난감하지만 국내 유일의 농업정책전문연구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실을 만든 분이자 도서관계 대선배님으로 단편적으로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1998년도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우리 연구원 자료실에 격한 소용돌이가 몰아친 한 해였던 것 같다. 1998년 6월에 유실장님이 뜻한 바 있어 조기퇴직하시고, 연말에 초창기 정규직 멤버 총 4명중 3명이 명예퇴직하여 연구조원

한 명만 남게 되었다. 그 이듬해인 1999년 1월에 필자가 출근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총괄하셨던 유실장님과 실무책임자인 박문석 선생님이 모두 퇴직한 상태라 함께 근무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유광남 실장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99년 가을 청진동 골목 막걸리집이었다.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업무 중에 접하는 모든 것들에 실장님의 발자취와 체취를 느낄 수 있었기에 꼭 만나 뵙고 싶어 업무인수인계를 해주셨던 박문석 선생님을 통해 만나 뵈 수 있었다. 첫 인상은 상당히 강단있어 보이

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면서도 분위기를 주도하는 카리스마(?)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유광남 실장님을 기억하는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단어들이 나온다. '로맨티스트', '문화인', '진보주의자' 등등. 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어울렸던 분들이 1980년도 언론 통폐합시절에 해직당한 기자들과 갓 입사한 젊은 박사들이었다고 한다.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 그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들과의 대화에서도 항상 화제와 논의를 주도하는 입장이었다고 하니 폭넓은 상식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상당히 유연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한 주점에서 여성동성애자들과 어울려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대화하시는 걸 보고 같이 간 후배가 상당히 놀랐다는 후일담도 들었다.

유실장님은 1978년 연구원 창립멤버로 연구원에 초빙되어 농업정책연구전문도서관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현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분류체계(단행본은 DDC, 연구보고서는 기관별 관리)를 정립하고, 국내외 자료교환망 구축, 기본 장서확충 및 필수 간행물 확보 등 자료실이 연구자료 수집을 통한 연구지원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게다가 독립된 자료실 공간확보를 위해 경영진들에게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한 끝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별관에 독립적으로 동지를 틀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 1988년도부터 독자적으로 도서관전산화시스템을 설계하여 전산실과 함께 「KREILAS를 개발」하였고, 1983년도에는 유럽공동농업국(CAB)에서 만든 농업검색어집을 참조한 농업분야 최초의 시소러스인 「농경문헌검색어집」도 집필하였다. 신착자료속보인 「주간신착자료 안내」, 「농경문헌정

보」, 「농업경제학술잡지 기사색인」 등을 제작하여 연구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하는데 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KSLA 전신인 '한국사 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의 마지막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도서관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유실장님과 함께 근무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그나마 입사 후에 꾸준히 1년에 1~2차례씩 만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유실장님을 만날 때는 필자도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주변에 맛있고 분위기 좋은 집을 미리 둘러보고 약속장소로 가는데, 그때마다 유실장님은 먼저 도착해서 약속장소 주변의 식당들과 애깃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덕분에 피맛골에 있는 이름 없는 막걸리집도 알게 되었고, 허리우드 극장 주변의 허름하지만 이야기꺼리가 풍성한 맛 집도 많이 알게 되었다.

2011년도 우리 연구원 도서관이 문체육관광부 평가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자 별도로 알리지도 않았는데 다른 분들에게 소식을 듣고는 전화를 해서 막걸리 한잔을 꼭 사야겠다며 당장 만나자고해서 너무나 고마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항상 마음은 연구원에 두고 계신 것 같아 든든하기도 하고 또 긴장도 하게 된다.

요즘도 연말이면 유실장님을 모시고 예전에 근무하던 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막걸리 잔을 겨누는데, 꾸준한 운동과 취미활동으로 등산도 하셔서 매우 건강하신 모습이어서 보기 좋았다. 특히 지난번 KSLA 40주년 행사에 참석하셔서 후배들에게 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내심 무척 뿌듯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막걸리 잔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